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매달 거래 정액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도 가능합니다
●3년간만 저축하면 거래가
안돼 대타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69-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안색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간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월 1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불기 2541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맞이를 꾸며주며 21세기로 진입하는 문턱에 선 우리는 동시에 세기말적 징후들을 우려하며 살고 있다. 도덕성의 타락과 양심의 실종은 나라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12월에 치러질 대선, 경기 침체, 북한 주민의 식량난 등 국내외의 난제가 눈앞에 놓여있다. 급변하는 사회현상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편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위기가 곧 기회'이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기에 엄장을 녹이는 참회로부터 출발하자. 본지는 '참회의 삶을 살자'를 연중특별기획으로 전개한다. 참회집언으로 새아침을 열자. '올 새바릇자 모지 시다야 사버하...' (편집자 주)

능히 과실을 스스로 고쳐 놓는 사람은 과실이 없는 것과 같다. (채화위왕경)

저지른 악업이 있어도, 마음을 돌려 고백해서 양심의 잘못을 반성해 깨닫고 마음을 집중하여 거듭 참회한다면, 비록 악업을 지었다 해도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 (분불선악보충경)

먼저 악을 저질렀다 해도 뒤에 이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나서는 부끄러워하여 다시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열반경)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날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십이장경)

귀우정도 성심(善心)이다. (존파수밀경)

만약 두꺼운 죄를 지어도 자백하고 참회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능히 근본업(根本業)을 뿌리 뽑아 버릴 수 있다. (업보차별경)

관련기사 3·15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의 아찔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정축년 새아침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합장



“얼굴 모르는 시부모님 언제 뵈올지...”

북녘하늘 바라보며 통일발원

귀순불자 박수현씨부부 오두산 통일전망대서 폐백

“어머님 아버지, 둘째아들 수현이가 오늘 참한 색시 얻어 장가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시부모님을 언제 뵈올지... 어서 통일의 날이 오기를 부처님께 두손 모아 기원했습니다.”
구립 25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녘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 폐백을 대신한 귀순불자 박수현씨(31·경희대 의대 본과 2년)와 신부 고순덕씨(29) 이 자리에는 박씨의 양아버지이기도 한 법타스님(은혜사 주지)과 귀순불자 동료 김명철씨 등이 저리는 가슴으로 묵묵히 지켜 보고 있었다. “북남남녀” 새출발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축복과 본단의 아픔이 교차하는 화혼식이 치러진 것이다.
이날의 주인공은 지난 93년 10월 자유를 찾아 월남한 박수현씨와 신부 고순덕씨, 함경북도 주출 출신인 박씨는 경성대 의대에 다니다 동생이 남의 집 식량을 훔치다 발각돼 학교에서 쫓겨난 후 월남했으며, 남한에 온 이후 경희대 한의과대

태고종 종단차원 '탐사철거' 해결나서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구립 23일 총무원 3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중무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진안군청의 마이산 탐사 철거지시와 관련하여 종단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태고종은 진안군의 마이산 탐사 행정명령 건이 정치성이 개입된 군수의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하고 가까운 시일내 마이산 탐사의 실상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기로 했다.

임진강 건너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녘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린 것으로 폐백을 대신한 박씨부부와 법타스님이 임진강 건너 개성출원리 마을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해안공업단지 건설로 물의를 빚고있는 가야산 국립공원 생태계 학술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있다. 이번 조사결과 가야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검정무늬 가슴빛바진벌레(신칭)와 더듬이혹벌의병벌레(신칭)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삭송이풀, 매발톱나무, 난쟁이바위솔, 구름범아리난초 등 희귀식물도 자

가야산에 희귀 동·식물 자생

국립중앙과학관 생태계 학술조사 결과

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희렬)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가야산국립공원 일대 생태계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동물류 1천11종, 식물류 1천1백47종 등 모두 2천1백58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곤충류는 이 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84종을 포함 9백25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

'한미불교방송' 승인

btn이사회 예산안 '통과' 불교TV는 구립 23일 이사회를 열고 97년 예산 91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미국 LA 관음사(주지 도안) 불교TV 지사 '한미불교 방송' 설립과 프

97 신년특집 28면 발행

참회의 삶을 살자	3면	고은 신 심우도송	17면
산문밖의 선-한병삼씨	5면	정치인에게 주는 큰스님 한 말씀	18면
직장·직능법회 실태현황	6면	문화유산의 해 '프로그'	19면
큰스님 수행현담-동산스님	7면	'전법의 해'에 바란다	21면
정보화 사회와 불교	8·9면	새연재-만화 백유경	25면
13년간 매일 3천배 보살	15면	금강산 최남단 화엄사기다	28면

신행수기 당선자 발표 23면 110호 15일 발행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각종 발전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취전기, 전동용, 제조용, 용집기, 철도용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동력되는 모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철설비, 환강보전설비, 화력발전, 석도설비

자동차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 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차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선있게 제안합니다.

계장설비, UPS, PLC 등 전선기기, 공구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콘크리트

효성중공업주식회사